

조계종, 세월호 규명 1천만인 서명 동참

자승 스님, 29일 유가족 대표 예방 자리서 밝혀

조계종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중단적 차원으로 동참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예방 자리에서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이 10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아이들을 비롯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발생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불교계가 사회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죽비 경책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그간 진도 팽목항과



5월 29일 예방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서명 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안산에서 실종자와 희생자를 위해 기도와 자원봉사를 통해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왔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절대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 2기 인사 단행

총무 정만·호법 서리 세영 스님
사회 정문·박물관장 화범 스님

조계종 총무원 2기 인선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30일 총무부장에 정만 스님 등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 정만 스님(부산 범어사 금강암), 호법부장 서리 세영 스님(여주 신석사 주지), 사회부장 정문스님(중앙종회의원),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남양주 흥국사 주지)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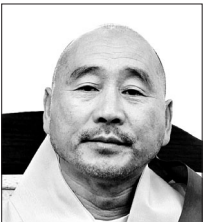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불교신문 주간에 주경스님(서산 부석사 주지)가 임명됐으며 수입사업담당총괄 특보에 설암 스님, 사찰음식담당 특보에 대한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기획실장 일강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유임됐다. 이들 인사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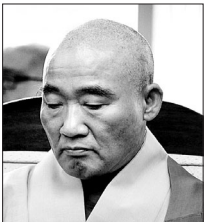
총무부장 정만 스님



사회부장 정문 스님



호법부장 세영 스님



박물관장 화범 스님

한 후 자승 스님은 "임명 받은 스님들은 종단을 잘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소임자들은 책임과 의무, 봉사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교구중심제’ 실현위한 위원회 구성

본사주지협, 26일 회의서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교구중심제’를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회장 회자 단판)은 5월 26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에서 요청한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결성했다.

‘중앙·교구발전위원회’는 중앙총무원 4인과 교구본사 주지 6인으로 구성기로 했다. 중앙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단판 스님을 당연직으로 뽑아 사 주지 수불 스님(부산·경남),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경북),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전라),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충청), 월정사 주지 정범 스님(경기·강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위원회 산하에 중앙총무원의 총무차장, 사찰교무팀장, 기획팀장, 교육차장, 포교차장과 교구본사에서 추천하는 4~5인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 접근성 결여...장애 불자 13% 개종 생각

조석영 관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포럼서 주장

사찰의 접근성 결여로 개종을 생각한 비율은 13.3%,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신앙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4월 장애불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버스를 운영한 덕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불교계 지역사찰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을 주제로 5월 26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그간 불자 장애인들의 사찰 내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토론회이다. 사찰에서 장애인들의 신생활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온 터다.

신축 사찰은 이런 문제가 덜하지만 문제는 전통 사찰이다. 전통사찰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에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법당은 계단과

문턱때문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대표적 건물이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회 바람리 회원들이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사찰 9곳을 방문한 결과 법당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한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일주문에서 전까지

전통사찰 9곳 편의시설 체크하니
법당 경사로 설치는 12%에 불과
현대 사찰 시설은 상대적 ‘양호’

“전통사찰 지리적인 한계 있지만
정서 유대감 위해 인력 배치 필요”

경사로 설치 비율은 32.1%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 계단 내 손잡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꼽았다. 장애인 접근권은 공중 이용시설에 일반인 등과 같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다. 공공시설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공연장,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장



장애불자들을 위한 사찰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월 26일 열린 포럼에서 조석영 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다. 사찰의 경우 전각 하나의 면적이 해당 기준(500㎡)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법적 설치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사찰내 문화재 관람과 여가 기능까지 고려하면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리적으로 배려 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어려움을 불려일으키는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사찰의 역할이며 종교적 포교라고도 지적한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역시 사찰의 지리적 위치와 건축물 특성상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불교계의 사회적 인식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자 장애인들은 신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접근성을 높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관장은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핸드레일을 먼저 설치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해 설비시설을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편더러 활용이 불편한 핸드레일을 미관상 좋다는 이유로 설치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전통사찰 지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규제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종단 차원에서 자문 지원 기구 설치를 위해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 경기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사찰 편의시설 개편 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형과 산지형을 구분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편의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사찰 내 봉사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명상포교, 현장 연구와 지도자 양성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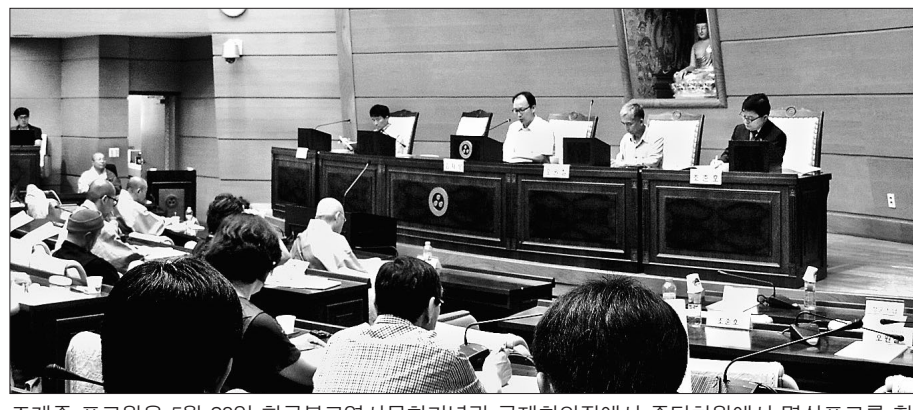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 정책연찬회
종단 내 명상 포교 기관 필요

오늘날 명상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마음산업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기업과 사회, 학교나 가정,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종단차원에서 명상포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포교원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6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명상포교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는 김재성 마하보다 명상심리대학원 교수가 ‘명상포교,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치료학과 교수)이 ‘명상포교의 역할과 종단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경 스님은 “명상의 원류는 분명하게 불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명상의 붐은 불교계보다 외부 영향력에 의해 발생·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교의 활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계종 포교원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차원에서 명상포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56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강조했다.

인경 스님은 불교가 명상의 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정체성 확립의 문제 △문화 중심연구에서 현장연구로 전환의 시급성 △지도자양성의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사회 속에서 불교 포교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명상포교는 불교의 정체성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현재 불교계 내부에서 명상

에 대한 현장연구가 미약하다며 “불교계 내부의 연구는 여전히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연구에 대한 방법론이나 관심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장연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으면 지도자 양성문제와 더불어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도자양성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스님은 “명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들 수요에 대응하는 지도자 양성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총무원과 교육원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종단 내부에 명상포교와 관련한 기관을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석영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명상포교의 정의, 역할, 종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명상포교의 전개방법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포교를 담당하는 스님이나 재가자들이 명상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수련이 능숙해야 한다”며 “수행을 지도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종단과 개별사찰, 연구기관이나 종합학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이 있어 초기불교에 대한 교학적인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명상 연구와 수련을 위한 선원은 전무한 형편”이라며 “조계종 불학연구소나 포교원 산하에 명상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을 두어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있고 효과있는 새로운 불교 명상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